

열방에 빛을 다음세대와 함께 세우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선교 —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의 소명과 AI 시대의 새로운 선교 지평

Called and Scattered: The Korean Diaspora Church and New Missional Horizons in the Age of AI

김종필 박사 (Dr. Elijah Jong Fil Kim)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KWMC) — Plenary Session, 2026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행 11:19-21)

I. 서론: 본 강의가 제시하는 고유한 관점

2026 년,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되고 전 세계 인구의 3.6%에 달하는 2 억 9 천만 명이 자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시대¹, 그리고 193 개국에 약 750 만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산재한 시대², 필자는 선교의 본질을 다시 묻고자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기초 개념—헬라어 διασπορά의 어원, 야고보서 1:1, 베드로전서 1:1 의 성경적 용례, Enoch Wan 과 Jehu Hanciles 의 디아스포라 선교학 정의—은 이미 2024 년 로잔 서울 대회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 본 글은

¹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nternational Migration 2024: Highlights (New York: UN, 2024), 1. 2024 년 기준 전 세계 국제 이주민은 약 2 억 9 천만 명(세계 인구의 3.6%)이며, 이 중 약 1 억 1 천 7 백만 명이 강제 이주민과 난민으로 역사상 최고치이다.

²재외동포청(OKF), 『2023 재외동포현황』 (서울: 재외동포청, 2023), 3. 한인 디아스포라는 193 개국에 7,325,143 명으로 시민권자 62.77%, 영주권자 16%, 일반 체류자 16.99%로 구성된다.

기본 개념을 반복하지 않고, 필자가 지난 15 년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다음과 같은 고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첫째, 오늘의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의 영역과 범위를 그리고 목표를 살펴 본다. 둘째, AI 시대의 네 가지 선교 시나리오와 디아스포라 사역 6 유형을 제시한다. 셋째, One Korea 비전—남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세 코리아—이 21 세기 한민족 선교의 최후 지평임을 확인한다.

II 실현 가능한 디아스포라 선교란

II.1 21 세기의 새로운 선교 지형과 디아스포라 (2000–현재)

2004 년 태국 파타야 로잔 대회, 2009 년 서울 선언문³, 2010 년 케이프타운 서약, 2024 년 로잔 서울 대회에 이르기까지, 디아스포라 선교는 세계 선교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 2017 년 이미 전 세계 파송 선교사 43 만 명 중 비서구권 출신이 절반을 넘어섰다. 패러다임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one)'로 전환되었다.⁴

2000 년 선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디아스포라 선교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원형(原型)으로의 회귀이다. 그리고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는 이 6 단계 역사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다.

II.2 한인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선교에 주는 세 가지 함의

³Lausanne Movement, "The Seoul Declaration on Diaspora Missiology," November 2009, <https://lausanne.org>. 로잔운동은 2009 년 서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공식 선교신학 분야로 인정하였다.

⁴Jehu J. Hanciles, *Migration and the Making of Global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2021), 420. '모든 기독교인 이민자는 잠재적 선교사이다(Every Christian migrant is a potential missionary).'

바젤 선교회 모델이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 비즈니스맨들에게 주는 함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⁵ 첫째, 직업의 신학적 재정의. 바젤 선교회는 상업과 비즈니스를 선교의 부수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독자적 소명의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직업 소명론(Beruf)을 선교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 사업가들이 자신의 직업을 '킹덤 비즈니스(Kingdom Business)'로 재정의하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 둘째, 창의적 접근 국가(CAN)에서의 적용. 공개적 선교 활동이 금지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복음 전파는 바젤 선교회 모델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셋째, 현지 경제 공헌을 통한 복음의 공신력 확보.

로잔운동의 케이프타운 서약(2010)은 이를 다음과 같이 확증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재능, 기술, 자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부르시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일과 사업 활동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표현해야 한다.'⁶ 필자가 2012 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증해 온 것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의 원형 자체가 이미 바젤 모델과 구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III.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 6 유형

⁵김종필, "한민족디아스포라선교대회 강의를 (BAM/Sodality/Modality)"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2012), 7-10.

저자는 이 강의를 바젤 선교회 모델이 오늘날 한인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선교에 주는 세 가지 함의—직업의 신학적 재정의, 창의적 접근 국가(CAN)에서의 적용, 현지 경제 공헌을 통한 복음의 공신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⁶Lausanne Movement, The Cape Town Commit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1), §II-D. '예수님을 따르는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재능, 기술, 자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부르시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일과 사업 활동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표현해야 한다.'

Enoch Wan 은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4 유형으로 분류하였다.⁷ 필자는 이 분류가 한국적 맥락에서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6 유형으로 재정리할 것을 제안해 왔다.⁸

① **동족 사역(Mission to the Diaspora):** 해외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사역. 한인 이민 교회의 가장 기본적 유형이다.

② **현지 민족 복음화(Mission through the Diaspora):** 한인 교회가 현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중앙아시아의 고려인(Koryo-Saram)과 중국의 조선족(Chaoxianzu)이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

③ **역선교 / 본국 교회 갱신(Mission from the Diaspora):**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본국 한국 교회에 새로운 선교적 통찰을 제공하는 역방향 선교. 탈민족주의적 경험, 다문화 사역 모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역량이 한국 교회를 갱신할 수 있다.

④ **북한 디아스포라 사역:** 탈북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중국 조선족 교회와 북중 접경 지역 한인 교회가 핵심이다.

⑤ **코리안-러시안(Koryo-Saram) 사역:** 스탈린 시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후손(약 50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역. 1991 년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⑥ **조선족(Chaoxianzu) 사역:** 중국 내 약 183 만 명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사역. 이중 언어 능력은 중국 복음화와 북한 선교에서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⁷Enoch Wan, *Diaspora Missiology: Theory, Methodology, and Practice*, 2nd ed. (Portland: Institute of Diaspora Studies, 2023), 87–95. 완은 디아스포라 사역을 ① Mission to the Diaspora, ② Mission through the Diaspora, ③ Mission from the Diaspora, ④ Mission beyond the Diaspora 의 4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⁸김종필, "21 세기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도전: 유대인 디아스포라 선교와 비교분석" (미출판 논문, 2014), 15–17. 저자는 Wan 의 4 분류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여 ⑤ 코리안-러시안(Koryo-Saram) 사역과 ⑥ 조선족(Chaoxianzu) 사역을 추가하는 6 유형 분류를 제안하였다.

이 6 유형 중 ④⑤⑥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만이 가진 고유 영역으로, 화교(5,000 만 명)나 인도인 디아스포라(3,500 만 명)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선교 자산이다. 특히 ④북한 디아스포라 사역은 한민족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이다.

IV. 한인 디아스포라의 강점과 약점

필자가 KWMA 2023 년 통계에 근거해 분석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강점은 다섯 가지이다:

(1) 인구 100 만 명당 선교사 파송 비율 세계 최고 수준의 선교 동기, (2) 새벽기도·철야기도의 기도 문화, (3) 이중문화 역량, (4) K-culture 의 긍정적 이미지, (5) 한국 교회의 재정 지원 네트워크. 반면 약점은 네 가지로 지적된다: (1)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 (2) 세대 간 갈등과 '침묵의 엑소더스(Silent Exodus)', (3) 교단 분열과 목회 권위주의, (4) 현지 교회와의 협력 부족.

특히 필자는 '한국화(Koreanization) 선교'의 위험성을 2012 년부터 일관되게 경고해 왔다. 19 세기 식민주의 선교가 '기독교화 = 서구화'의 등식을 낳아 수많은 문화 제국주의적 폐해를 남긴 것처럼, 21 세기 한국 선교가 '선교 = 한국화'로 전략한다면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한국의 교회 구조, 예배 스타일, 직분 체계를 현지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유혹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⁹

'침묵의 엑소더스'—1.5 세와 2 세 디아스포라의 교회 이탈—는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다. 사도 바울이 다소(Tarsus) 출신으로서 유대인, 로마 시민, 헬라 문화 교육의 삼중 정체성을 선교의 탁월한 자산으로 승화시켰듯이, 한인 1.5 세와 2 세들의 이중문화

⁹김종필, "선교 역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한민족 선교의 고찰과 제언" (한민족 세계선교대회 강의를, 2012), 12-14. 저자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민족 중심주의가 선교적 정체성 상실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한국 선교가 '선교 = 한국화(Koreanization)'로 전략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역량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선교적 자산이다.¹⁰ Sherwood Lingenfelter 가 '가장 효과적인 선교사는 이중문화적 존재'라고 말한 것처럼¹¹, 디아스포라 2 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문화를 내면화한 '탁월한 선교사 자원'이다. Young Lee Hertig 는 한인 2 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논증하였다.¹²

V. AI 시대의 선교: 네 가지 시나리오

2026 년, 인공지능(AI)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AI 를 '비유기적 지능(non-organic intelligence)'—인류가 처음 마주하는 비유기적 형태의 지능—의 출현으로 규정한다.¹³ 무신론자인 그조차 AI 출현이 주는 혁명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고, 양은 젖을 만든다. 인공지능도 이와 같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방향은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의지와 목적에 달려 있다." — 김종필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맡겨진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의 연장선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성경을 민중에게 열어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고, 라디오와 방송이 설교의

¹⁰Helen Lee, "Silent Exodus," Christianity Today, August 12, 1996, 50–53. 리는 성인이 된 한인 2 세들이 한인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현상을 '침묵의 엑소더스'로 개념화하였다. 주요 원인은 권위주의적 교회 문화, 언어적 장벽, 세대 간 문화적 이해 부족이다.

¹¹Sherwood Lingenfelter, Transforming Culture: A Challenge for Christian Miss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8), 16–24. 가장 효과적인 선교사는 '이중문화적 존재(bicultural being)'이며, 이 능력은 훈련이 아닌 삶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디아스포라의 특권이다.

¹²Young Lee Hertig, "The Korean Diaspora: Revisio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in Korean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 eds. Wonsuk Ma and Julie Ma (Oxford: Regnum, 2011), 45–60. Hertig 는 한인 1.5 세와 2 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논증하였다.

¹³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2015), 397–462. Harari 는 AI 를 '비유기적 지능(non-organic intelligence)'으로 규정하며, 무신론자임에도 AI 출현이 인류에 대해 갖는 혁명적 의미를 인정한다.

올림을 확장했으며, 인터넷이 지구를 하나의 선교지로 연결했다면, AI 는 이 연속선 위에서 복음을 더 멀리·더 깊이 전하는 디지털 도로가 되고 있다.¹⁴

V.1 AI 시대 선교의 네 시나리오

필자는 AI 와 함께 살아가는 선교의 미래를 '인간 형성의 깊이(교육·영성·인격적 성숙)'와 '거버넌스의 강도(안전 규제·책임 구조)'의 결합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체계화한다.¹⁵

① **공존-증폭 시나리오 (인간 형성 강함 × 거버넌스 강함)**: AI 가 철저한 안전 장치와 투명한 감사 시스템 안에서 운용되고, 디아스포라 교회는 기술을 공공선 증폭 도구로 활용한다. 가장 이상적인 AI 시대 디아스포라 선교의 그림이다.

② **관리된 피상성 (인간 형성 약함 × 거버넌스 강함)**: 큰 사고는 줄어들지만, AI 가 모든 것을 대신 판단하니 사람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게 된다. 풍성한 다양성과 창조적 도약이 줄어드는 사회—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③ **가속 양극화 (인간 형성 강함 × 거버넌스 약함)**: 일부 엘리트는 AI 를 적극 활용하여 더 높은 성취를 이루지만, 대다수는 단순 소비 집단으로 남는다. 에이전트 조작과 인지 착취가 만연하고 정보 봉건제가 형성되는 위험한 시나리오이다.

¹⁴Craig Detweiler, Faithful Tech: How Christian Mission Can Embrace Digital Tools Wisel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2), 45–68.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라디오가 20 세기 부흥 운동을 가능케 했듯이, AI 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인프라가 될 수 있다.

¹⁵김종필, "강의안: 디지털 시대의 제자화 선교" (KWMA, 2025). 저자는 AI 와 함께 살아가는 선교의 미래를 '인간 형성의 깊이'와 '거버넌스의 강도'의 결합에 따라 네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음을 최초로 체계화하였다. ① 공존-증폭, ② 관리된 피상성, ③ 가속 양극화, ④ 연쇄 불안정·가치 잠금.

④ 연쇄 불안정·가치 잠금 (인간 형성 약함 × 거버넌스 약함):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 작은 사고가 정책 실패와 집단적 오류로 이어지며, 집단 사고와 폭력화가 쉽게 발생한다. 기술이 인간을 지켜주는 커녕 사회 혼란을 가속화한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은 명확하다. ①의 시나리오를 지향하면서, 교회 자체가 '인간 형성의 깊이'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확장시킨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야 한다. 속도보다 성령, 효율보다 임재—이것이 AI 시대 교회의 첫 고백이어야 한다.

V.2 AI가 디아스포라 선교에 가져오는 구체적 기회

첫째, 언어 장벽의 해소와 성경 번역의 가속화. 바이블리카(Biblica)는 AI를 활용하여 성경 번역 기간을 최대 25년 단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1,900개 이상의 소수 언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AI는 이 작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¹⁶ 둘째, 맞춤형 제자훈련과 설교 준비 보조. 셋째, 창의적 접근 국가에서의 디지털 복음 전파—공개 전도가 금지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AI 챗봇이 '복음의 대화자'가 된다. 넷째, 디지털 복음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 다섯째, 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V.3 AI 선교 활용을 위한 4가지 안전장치

AI는 선교의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¹⁷

¹⁶Jesus Film Project, "How AI and Evangelism Work Together to Reach Every Nation," November 2025.

바이블리카(Biblica)는 AI를 활용하여 성경 번역 기간을 최대 25년 단축하였다고 보고한다. 현재 1,900개 이상의 소수 언어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¹⁷김종필, "AI와 기독교 선교," KWMA 강의안, 2025. 저자는 AI 활용 시 ① 신학적 검수, ② 환각(hallucination) 방지, ③ 개인정보 보호, ④ 성령 주도라는 네 가지 안전장치가 필수임을 강조한다. '이는 능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눅 4:6).

- ① 신학적 검수의 원칙: AI 산출물은 반드시 '초안'이다. 신학적 해석·교리적 문구는 목회자·교단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AI 는 도구이고 사람이 최종 결정자'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② 환각(Hallucination) 방지: AI 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문제가 있다. 모든 AI 생성 콘텐츠는 교차 검증을 거쳐야 한다. 성경 인용, 역사적 사실, 통계는 반드시 원전 확인이 필수이다.
- ③ 개인정보·초상권 보호: 영상·오디오·사진 사용 시 당사자 동의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창의적 접근 국가에서의 선교 사역에서 AI 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이 신자들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④ 성령 주도의 사역: '이는 능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눅 4:6). 옥스퍼드 수학자 John Lennox 가 논증한 것처럼, AI 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서 비롯되는 인간 고유의 영성과 창의성을 대체할 수 없다.¹⁸ AI 시대에도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사람이 사람에게, 삶으로 삶에게,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전하는 성육신적 복음이다.

VII. 실천적 제언 10 가지

1.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문화적 보호소'에서 '선교적 공동체'로.
2. 신학적 기초를 강화하라—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성경적·역사적 기초 교육 필수화.
3. 다음세대를 선교의 주체로 세우라—이중문화 역량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 자산이다.
4. 세대 통합(Intergenerational) 사역 모델을 개발하라—1 세와 2 세의 분리가 아닌 연합.

¹⁸John C. Lennox, 208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Humanity (Grand Rapids: Zondervan, 2020), 67–92. 옥스퍼드 수학자 Lennox 는 AI 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서 비롯되는 인간 고유의 영성과 창의성을 대체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5. AI 와 디지털을 선교 도구로 활용하되, 네 가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지키라.
6. 비즈니스 애즈 미션(BAM)을 강화하라—바젤 선교회 모델의 회복.
7. 현지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라—'한국화(Koreanization) 선교'를 경계하라.
8. K-Culture 를 선교 접착점으로 전략화하되,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중심에 두라.
9. 북한 디아스포라 사역과 One Korea 비전을 품으라—세 코리아의 연합.
10.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라—모라비안 100 년 기도 릴레이의 회복.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 소렌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때이다: "구두 한 켄레만 준비된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다." AI 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신발을 신고, 이중문화라는 날개를 달고, 다음세대와 손잡고, 기도의 불꽃을 들고—이 시대의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열방을 향해 출발할 시간이다. 그 소명의 중심에 "우리의 어린양이 이겼다. 우리가 따르리라(Our Lamb has conquered, let us follow Him)"는 모라비안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2-3)*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Plenary Session 2026

© Elijah Jong Fil Kim, PhD